

DUCK'S NEWS

1 오리농가 사육제한기간, 이달 말 종료 정부 연장검토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 전격취소

오리농가 사육제한 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오리농가 사육제한 기간 연장 검토에 따라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가 전격 취소됐다.

한국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요청으로 지난 2월 17일 실시한 면담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가금생산자단체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수용됨에 따라 당초 2월 19일로 예정했던 가금생산자단체 1차 결기대회를 취소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매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다음 달에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출하 후 휴지기간 미적용, 도축장 AI 검사 강화 미적용 등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리협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총결기대회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인 종란 폐기 추가보상 등을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AI 방역대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선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휴지기제 연장을 신청한 전국 46개 오리농가에 대해선 지자체가 판단해 휴지기제 연장을 실시하되, 지자체 예산으로 적용키로 했다.

휴지기 농가 중 다음달 10일까지 입식이 어려운 농가는 당초 보상액인 마리당 72원에 연장일 일할 계산을 합산해 776원까지 보상키로 했고, 종란폐기에 대해서도 1회 추가 보상키로 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단편적인 방역대책이 아닌 AI와 국내 가금산업에 걸맞는 장기적인 방역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국내의 AI 발생상황과 지난 AI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금산업은 유지·발전하면서도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 [2019. 2. 19]



축평원, 닭·오리·계란 가격정보 실시간 문자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 가격 정보를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ekapepia.com) 통해 발표되고 있는 가금산물 유통단체별 가격정보를 문자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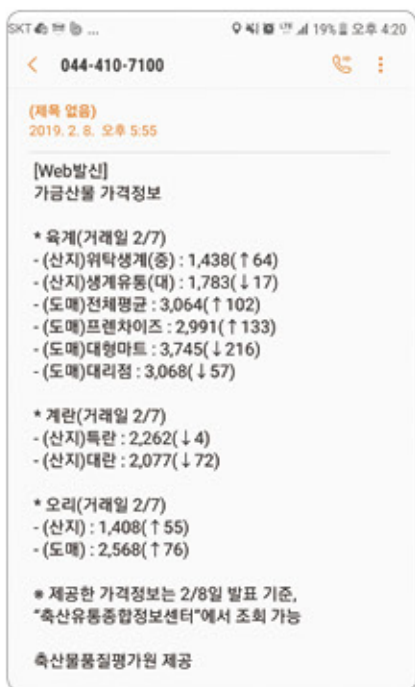
문자서비스 대상은 가금산물 가격조사 참여 업체 및 농가,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업체 담당자는 물론이고 정부, 지자체 관계자, 관련기관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육계의 경우 산지가격을 '위탁생계가격'과 '생계유통가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위탁생계가격'은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가 산당을 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가격'은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당형태로 거래하는 가격을 말한다.

축평원 관계자는 "가금산물 가격조사와 발표 품목을 병

아리 및 산란노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품목확대와 더불어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가금산물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2019. 2. 11]



KBS '2TV 생생정보', 오리더덕주물럭 맛집 소개



지난 2월 18일 저녁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오리더덕주물럭' 맛집이 소개됐다. 인천 방축동에 위치한 '계양산에너네집'이다. 메뉴는 하나지만 쫄깃한 오리와 향긋한 더덕을 함께 볶아 어지간한 보양식 뽀치는 영양에 비주얼까지 환상적이다. 취향에 따라 쌈을 싸 먹거나 밥에 비벼먹을 수도 있고, 느끼함 없이 칼칼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 마늘을 약탕기에 썰낸 '흑마늘고'를 진액으로 다려서 양념장에 넣어 잡내를 잡고 풍미까지 더해졌다.

▶ 부산일보 [2019. 2. 18]

4

올해 810억규모 농식품펀드 신규 조성 농식품부, 콜옵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펀드를 81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에 500억 원을 투자하면 민간 투자금 310억 원을 유치해 투자 집행을 맡을 자(子)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올해 농식품 펀드 운용사는 3월 29일까지 모집해 4월 말 발표된다.

지난해 청산 수익배수 최대 229.5%

농식품 펀드는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다. 지난해까지 8390억 원 규모 55개 자펀드가 조성돼 농식품 기업 307곳에 5,937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모태펀드 조성 후 처음으로 자펀드 4개가 준수한 수익을 올리고 청산됐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아주 아그리젠토(Agrigento) 1호 투자조합'의 수익배수(펀드 납입금 대비 수익 분배금 비율)는 229.5%(200억 원 납입, 459억 원 분배)에 이른다. 자펀드 중 수익배수가 가장 낮은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도 266억4200만 원을 투자해 302억7200만 원의 수익을 분배했다. 투자 대상 기업 역시 아시아중요가 농식품펀드 투자를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올해부터 소액 투자 맡은 마이크로펀드 도입

농식품부는 올해도 이 같은 투자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125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펀드가 도입된다. 소규모 농식품 기업에 5억 원 이하 소액 투자를 하는 펀드다. 그동안엔 농식품 펀드 투자가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 등 소규모·초기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마이크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사가 그간 투자 이력이 없는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도 125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초기 창업 기업 중 39세 이하 청년이나 농고·농대 졸업생,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이 대표를 맡은 기업이 투자 대상이다. 농식품 벤처펀드는 지난해 125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벤처펀드 조성액을 6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ABC(Agri-Bio-Capital)펀드는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 전액을 분야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



는 펀드다. 다만 농식품부는 ABC 펀드가 고용 창출 기업이나 우수 기업 보유 기업, 크라우드 펀딩(증권형) 성공 기업에 투자하면 관리보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농식품 일반 펀드 조성액은 460억 원이다.

콜옵선 제도 도입해 민간 출자자에 인센티브

농식품부는 또한 농식품 펀드 활성화를 올해부터 콜옵선 제도가 신설했다. 마이크로펀드, 벤처펀드, ABC 펀드 등 특수목적펀드 민간 출자자에게 정부 출자 지분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펀드 운용사가 받는 관리보수 규정도 바뀐다. 조성 3년 차까지는 펀드 결성금의 2.5%를, 4년 차까지는 투자액의 2.5%를 관리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보다 투자액 연동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 운용사의 초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투데이 [2019. 2. 19]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순회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 3월 7일부터 10개 지역서

정부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축산물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을 포함, 전국 10개 지역(총 13회)에서 진행하는 올해 상반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에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는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 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를 조속하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2019. 2. 19]



구멍난 방역체계, 마음가짐부터 꺾어야

설 연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의 애를 태우게 했던 구제역이 추가발생 소식 없이 잠잠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며칠만 잘 넘기면 이번 구제역 사태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별다른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면서 명절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관계자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구제역이 예년과 달리 조용히 지나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발생농가 주변 잠복기인 남은 며칠을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허술한 방역체계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강추위 등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추위가 물러날 때까지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대다수 우제류 사육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존재한다면 방역망은 결국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충주시가 밝힌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 실태를 보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분명한 경각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아주 일부의 경우일 수 있겠지만 구멍이 난 그물로는 밖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허가를 받은 사료운반 차량 1대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관리대상 축산 차량들의 운행이 1주일 여동안 300회에 이른다는 것은 구제역 방역의 첫 단추인 차량 이동제한 조치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구제역을 비롯해 그동안의 가축 전염병 발병사례를 보면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이었고, 이동제한만으로 방역 성과를 거둔 적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만큼 이번 충주지역의 축산관련 차량 운행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위반 농가에 대한 고발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더구나 이번 충주 농가의 사례처럼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됐음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되풀이될 경우 이동제한을 통한 전염경로 차단만이 가장 확실한 방역 방안이 된다. 또한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발생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동 규제가 무위에 그친다면 대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방역체계의 허점은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불과 4~5일 남은 시점에서 주변 축산농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장마다 외부 출입차량들의 이동경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보면 제한조치 기간 동안 운행했던 차량들을 서둘러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축산관련 차량 이동제한 위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축산 종사자들의 경각심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비상상황임에도 이를 아랑곳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한다면 방역활동을 위해 명절 연휴에도 길거리와 농장 입구에서 구슬땀을 흘린 이들의 노고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철저한 방역의 첫 걸음은 관계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오리고기 효능 알아보고 건강하게 먹기! 오리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다양한 보양식 재료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한 오리고기는 최근 다양한 요리법과 효능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식재료다. 또한, 오리고기는 미세먼지 속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하다.

오리고기 효능, 어떤 게 있나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함유해 성장 발달과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재료이다. 오리고기는 비타민 A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B2,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을 보면 고혈압, 신경통,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환과 비만증, 허약체질, 병후회복, 위장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유해한 기름이 적고 체내 독소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 콜라겐을 합성하는 아미노산과 리놀렌산 같은 필수지방산이 풍부해 피부 탄력과 재생 능력을 촉진한다. 오리고기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가 맛이 좋고 파, 미나리 와도 잘 어울린다.

오리고기, 다이어트에 효과적일까?



훈제오리 (사진=©Getty Images Bank)

보통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닭고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닭고기보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가 다이어트 푸드로 주목 받고 있다. 오리고기는 트랜스 지방 0%의



오리고기 (사진=©Getty Images Bank)

불포화지방산 육류로 칼로리 부담이 낮고, 또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은 낮추는 머슬녀 다이어트에 제격인 음식이다. 오리고기 칼로리는 100g 당 134kcal이다.

오리고기 부작용은?

오리고기는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몸을 차게 만든다. 평소에 수족냉증 등의 증상이 심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 또한, 오리고기를 과다섭취 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오리고기 요리,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풍부한 영양기를 고루 함유한 오리고기는 오리탕, 훈제오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특히, 부추는 오리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리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이다. 오리는 찬 성질,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한다. 오리고기 부추무침은 각종 채소와 오리고기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만점이다. 오리고기와 함께 곁들일 부추무침은 각종 채소를 썰어 간장 2큰술, 고운 고추가루, 참기름, 깨소금, 다진마늘, 올리고당 등 갖은 양념을 첨가해 무치기만 하면 된다.

▶ FAME타임스 [2019. 2. 20]

8

무허가 축사 신고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월 24일)을 앞두고 3월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젓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됐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1년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독제’ 동물용의약품에 추가…위반시 과태료

소독제가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추가되고,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16일 도축장에서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의 73%, 우제류 도축장의 100%가 희석배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없어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 내렸었지만, 앞으로는 방역 현장에서 소독약을 규정에 맞게 희석하게 하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개정해 소독제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약사공론 [2019. 2. 25]

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원 지원

전남도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조기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다.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 가운데 축종별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장한다.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 등 보험사업자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농가에서 지역축협 등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현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 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배윤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축 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올 상반기 추경 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2235호(4073만 4000마리)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축종별 가입률은 닭 100%, 오리 65%, 돼지 100%, 소 7% 등이다. 질병·화재, 폭염 피해 위험이 많은 축종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폭염 등 자연 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541호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다.

▶ 파이낸셜 뉴스 [2019. 2. 27]